

하상숙 · 송신도

1) 하상숙씨 · 송신도씨의 중국 漢口 · 武昌 위안소의 경우

번호	영상	선서공술 서 No.	설명
①	○ 우한(武漢) 공략시의 중지나(中支那) 파견군, 그 예하(隸下)인 제11군의 지휘 명령 계통도	(補1)	大本營(전시 일본 천황 밑에 두었던 최고 통수부)은 난징(南京)함락(1937년 12월) 후에도 교착 상태가 계속된 중일전쟁을 타개하기 위하여 1938년 5월말에 새로이 우한(武漢)을 공략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1938년 6월 15일에 대본영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武漢공략을 결정하여, 8월 22일 대본영은 중지나 파견군(사령관: 하타 슌로쿠(畑俊六))에 대하여 중일전쟁 이래 최대 작전인 우한(武漢)작전을 발동하였다. 중지나 파견군의 주력인 제11군 - 이의 사령관은 岡村寧次 중장.
②	○ 武漢三鎮要圖(야마다 세이키치(山田清吉) 『武漢兵站』 230쪽)	(補2)	10월 26일 漢口를 점령하고 제11군은 우한(武漢) 주변 지구에서 경비체제로 들어갔다. 제2군은 제11군과 함께 1938년 우한(武漢) 공략작전에 참가하여 武漢 점령 후 제11군 예하에 편입되었다.
③	○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大將資料(上):戰場回想編 302쪽』	4	제11군 사령관이었던 피고인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의 증언. 1932년 상하이(上海)사변시, 당시 상하이(上海)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피고인 오카무라가 「위안부」 제도를 창시한 것을 자백한 문서. 「저는 창피스럽지만 위안부 발안의 창설자입니다. 쇼와(昭和) 7년의 (=1932년) 상하이(上海)사변시 두세건의 강간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저는 상하이(上海) 지역 해군이 한 짓 처럼 나가사키(長崎)현 지사에 요청하여 위안부단을 불렀고, 그후 전혀 강간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④	○ 『오카무라 야스지大將資料(上):戰場回想編 303쪽』	5	우한(武漢) 공략시의 피고인 오카무라의 증언. 제6·9사단은 난징(南京) 공략전에 참가한 부대이며 이 중 제6사단은 우한(武漢)작전 중에도 「끝없이」 강간을 해 온데다가 「위안부」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그러나 사령관이었던 오카무라는 당시 방지책을 세운 흔적이 없다.

하상숙 · 송신도

⑤	○	나가사와 켄이치(長沢健一) 『漢口慰安所』 표시	6	제11군 소속 漢口병참사령부 군의(軍医)의 증언.
⑤	○	나가사와 켄이치 『漢口慰安所』 해당 부분	補(3)	▲중지나 파견군 사령부(사령관 하타 순로쿠가 「난징(南京)사건 재발 방지」를 우려한 것(39쪽). ▲漢口 점령 직후인 10월 27일, 무라나카(村中) 제11군 참모에 의해 「난징(南京)사건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위안소 설치 지시가 발령되어 漢口의 積慶里가 선정됨(42-49쪽). ▲파견군이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자·위안부를 군수품 취급으로 우선적으로 수송함(50쪽) ▲漢口 병참사령부는 「漢口 積慶里에 입지한 각 위안소 한 채 당 「민가 두채를 한 쌍으로 대여」(53쪽)하고, 11월 하순부터 개업하였다. 기타 생략
⑤	○	나가사와 켄이치 『漢口慰安所』 220-221쪽 武昌 위안소 부분		피해자 송신도씨가 연행된 武昌 위안소도 漢口와 같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군의(軍医) 나가사와의 증언. 「武昌의 위안소는 . . . 20 여채가 설치되었다. 경영자는 대부분 내지인으로 위안부는 조선·일본 합쳐서 약 200명 있었다. 매독 검사는 키타 무라(北村) 군의가 담당하여 漢口와 같이 경영, 감독도 하였다.」
⑥	○	제2군사령부 「第2軍狀況概要」(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편집·해설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212-213쪽)	7	공문서 자료. 제2군사령부는 제11군과 함께 1938년 武漢 공략작전에 참가하여 武漢 점령 후인 12월 15일에는 제2군의 예하 부대가 제11군 예하로 편입되었다. 1938년 11월 25일에 漢口위안소를 개업하여 표제도 등 군이 위안소의 제도화를 실행한 것을 제시하는 자료. 「제4 漢口 및 漢陽 경비」에 「위안소는 11월 25일부터 이를 개업하여 표제도에 의하여 혼잡을 방지하여 . . .」로 기술되어 있다.
⑦	○	在 漢口 총영사관 「職業別統計表」(요시미 『資料集』 263쪽)	8	공문서 자료. 漢口위안소 개업(⑤의 자료에 의하면 11월 25일) 직후인 11월 30일 현재, 漢口 및 武昌에서 위안소나 예기(芸妓)·작부(酌婦)·창부(娼婦) 기타가 실재한 것을 제시하는 직업별 통계표.
⑧	○	『오카무라 야스지大將資料(上):戰場回想編 304쪽』	10	「위안부」를 목격한 것을 보이는 기술(記述)이지만 방지책을 취한 기술(記述)은 없다. 「위안부는 부대에 따라서는 마치 부대원 같이 부대가 전진할 때 長江을 넘어 남북으로 동행된 것 같다. 어느 날 저는 漢口 시가의 중심 가두에 트럭 두세대에 태운 이런 종류의 일단(군복이나 군 외투를 입은 「위안부」를 의미함)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 보았는데, 그 실정을 알고 불쌍함과 수치스러움으로 복잡한 느낌이 들었다.」

하상숙 · 송신도

⑨	○	1945년 패전시의 제6방면군 지휘 명령 계통도	補4	피고인 오카무라는 복지나 방면군 사령관, 제6방면군 사령관을 거쳐 1944년 11월, 지나 파견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제11군은 광시성(廣西省)으로 이동하고, 漢口에 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제6방면군이였다(사령관 오카베 나오키부로(岡部直三郎)). 직후 하상숙씨가 漢口위안소로 연행되었다.
⑨	○	야마다 세이키치 『우한병참(武漢兵站)』 표지	11	1943년부터 패전까지(제11군) 漢口 병참 사령부에서 위안계장이 기술한 회상록
⑨'	○	야마다 같은 책 「漢口병참시설요도(漢口兵站施設要図)」 148쪽	(補5)	우한(武漢) 병참 사령부와 그 관리하에 있었던 漢口위안소가 기술된 지도
⑨"	○	야마다 세이키치 『武漢兵站』 77쪽	(補6)	조선인 「위안부」가 있던 위안소가 적어도 11채(150명)있었던 것, 그리고 위안소명의 기술(삭제 주의)을 게재. 이에 「三成樓」가 있었다는 하상숙씨의 증언과 부호.
⑩	○	조선총독부의 지휘 명령 계통	(補7)	조직도를 설명한다. 피해자 송신도씨가 武昌에 연행된 무렵에 조선총독이었던 피고인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부터 42년), 피해자 하상숙씨가 漢口에 연행된 무렵의 조선총독은 가와베 노부유키(河部信行, 1944~45년)이었다.
⑪	○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불량분자의 渡支 단속에 관한 건」 1937·9·3부, 9·17부 64-72쪽(『高等外事月報』(1939년 7월분))	13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가 조선 각 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서 자료. 조선인의 중국 도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게 된 것.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을 제시하는 자료.
⑫	○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渡支 신분증명서 발급 상황에 관한 건」(『高等外事月報』(1939년 7월분, 65쪽))	14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에서 조선 경찰부장에게 보낸 공문서. 각 도 경찰에서 ① 신분증명서 발급 상황 ②도항별 ③도항 목적의 세점을 조사하여 월보로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통첩이므로 조선총독부가 「위안부」의 징집과 이송처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자료.
⑬	○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漢口 도항자 단속에 관한 건」(『高等外事月報』(1939년 7월분, 70~71쪽))	15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가 조선 경찰부장에게 보낸 공문서 자료. 漢口의 「군위안소」 등이 포화 상태이므로 조선인의 漢口 도항을 제한한 것을 보이는 문서. 조선총독부가 漢口의 상황에 따라 위안부의 도항 등을 조절한 것을 나타내는 자료. 「음식점, 카페, 요리점, 군위안소 등 포화 상태에 있으며, 또한 이 중에는 악질한 자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금 기술을 갖지 않는 만연한 신규 도항자에 관해서는 도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⑭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渡지나인의 단속에 관한 건」 1942년 3월 19일부·1942년 8월 29일부(요시미 『자료집』 154~157쪽)	17	선서공술서14의 「渡支 신분증명서 발급 상황에 관한 건」(朝保秘 제66호)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渡支 신분증명서 발급 상황」 「도항 목적」 별로 작성한 표이며, 1942년 3월 19일자 문서는 194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 상황, 1942년 8월 29일자 문서는 194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조사이다. 조선총독부는 「위안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에창기(芸娼妓)」의 중국 도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제시하는 문서